

# 식용유 58%·밀가루 42% ↑...밥상물가 부담 가중

### 소비자물가 상승률 광주는 두 달 연속 6%대 전담은 7%대 광주 농축수산물·전남 외식물가 주도...공업제품 큰폭 올라 국제유가 상승 압력 둔화...정부 가을 정점 조심스런 전망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6%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남도 7%대 상승률을 2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통계 당국은 7월을 정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8%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배럴(158.9 l)당 10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와 추석 명절을 앞둔 농축수산물 수급 동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광주 6.6%·전남 7.3%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1998년 11월(광주 7.4%·전남 8.2%)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광주 8.7%·전남 9.0% 상승했다.

전남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 9%대를 나타내며 두 달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석 달 연속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광주 9.2%로, 전국 평균 상승률 7.1%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3개월 동안 광주 상승률은 6.0%(5월)→7.9%(6월)→9.2%(7월)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최고를 기록해왔다.

전남은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9%대로 오르며 가장 높았다. 지난달 지역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 8.1%·전남 9.0%를 기록했다.

전남 외식물가 상승률은 7.4%(5월)→8.7%(6월)→9.0%(7월)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지역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는 1998년 7월(9.9%) 이후, 전남은 1998년 3월(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와 전남은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8.9%)을 웃돌았다.

지난달 광주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보다 9.1% 올랐고, 전남은 10.7% 상승했다.



2일 오전 보도 휘발유를 1당 1790원에 판매하는 광주시 광산구 한 주유소에 차량이 줄지어 주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영향으로 이날 광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달보다 11.6%(-245.24원) 내린 1862.82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3월10일 이후 4개월여 만에 1800원대를 회복했다.

공업제품 물가 상승은 등유(광주 65.7%·전남 82.4%)와 경유(광주 48.3%·전남 48.1%), 휘발유(광주 25.7%·전남 26.5%) 등 석유류가 이끌었다. 식용유(광주 58.2%·전남 47.4%)와 밀가루(광주 40.4%·전남 42.5%), 국수(광주 33.1%·전남 28.5%) 등 수입 원재료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도 여전히 높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원·달러 환율

이 1300원대로 급등하면서 원재료가 크게 오르는 식품업계가 잇달아 제품 가격을 올리며 하반기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롯데제과와 CJ제일제당, 동원F&B 등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을 평균 9.0% 인상했다. 빙그레는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의 소매점 판매 가격을 20% 올리며 올해만 2번째 인상을 단행했다.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와 KFC는 약 반년 새 제품 가격을 2차례 이상 올렸고, 맘스터치도 가격 인상 6개월 만인 오는 4일부터 총 50종의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보다 광주·전남지역 각각 15.6% 인상됐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국내단체여행비(27.5%)와 승용차 임차료(24.7%), 국내 항공료(16.3%) 등이 오르면서 개인서비스 물가도 광주 5.6%·전남 6.1% 올랐다.

정부는 올가을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점차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김희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그간 물가 상승을 주도해온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했고 유류세 인하 등이 더해지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7월 말 1800원대에 진입하는 등 석유류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올해 들어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긍정적 신호들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구매 대행 서비스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구매대행 서비스' 신선 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쉽게 구하기 어려운 제철 수산물과 축산물 특수 부위, 과일, 와인·위스키 등을 고객이 문의하면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이달부터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서

광주경영자총합회가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금요조찬포럼' 개최 장소가 이달부터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로 변경된다.

광주경총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 아침 국내 최고의 각계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청해 개최하고 있는 '금요조찬포럼' 개최 장소를 기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대연회장으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장소 변경은 포럼에 참가하는 회원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품격있는 포럼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광주경총은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으로 확대

### 국회 본회의 소비세법 개정안 의결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반대 16인·기권 35인이었고, 개별소비

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반대 10인·기권 28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정의당 장혜영 등 두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지만, 이후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 "2020년 이후 개업자만 산정 방식 달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논란

정부가 2020년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만 코로나 19 피해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별도 산식을 적용하면서 보상금 액수가 더 적어지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2019년도 자료가 없어 별도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일평균 매출감소액×손실률×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이 중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기준으

로 삼아 도출한 값이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기준으로 쓸 수 있는 2019년 자료가 없어 별도 방식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했다. 중기부는 2020년 이후 개업자의 매출감소액은 업체별 연 매출 규모와 지역·시설의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계산했다.

2020년도 개업자의 손실률은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 자료를 지난해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했다. 소득세 신고 자료가 아예 없는 2021년도 개업자 등은 2019년 업종 평균 자료를 이용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코레일톡' 승차권 결제시한 10일부터 20분서 10분으로 단축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이용한 승차권 결제시한을 현재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톡의 간편결제 확대와 자주 쓰는 카드등록 등으로 결제과정의 간소화되면서 승차권 예매 때 걸리는 시간이 평균 90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정기승차권이나 철도 이용 패스 '내일로' 등의 보유자가 일반 승차권을 예약한 뒤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지리를 유도해 자신이 이용하던 편법 관행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정기승차권이나 내일로 패스 보유자들은 입석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승객처럼 좌석을 구매한 뒤 결제하지 않아 해당 좌석이 빈자리로 남도록 한 뒤 자신이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코레일은 좌석 확보를 위해 승차권만 예약하는 것은 다른 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이들에게 실시간 경고 알림도 보낼 예정이다.

같은 취지로 열차 출발이 임박한 20분 전부터는 결제시한이 5분으로 추가 단축되며 출발시간이 지나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결제유형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으로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연금저축펀드 갈아타고 경품 받자

### 광주은행 10월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이 연금저축펀드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지금'은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면 행사하는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시대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 수령 때까지 연기하는 과세이연 효과와 더불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3.3%~5.5%로 저울 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광주은행 측은 최근 조정 장세의 저가 매수 기회와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한 분산투자의 기회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행사 기간 다른 금융사 연금저축펀드 또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자사 펀드로 이전

하는 개인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3매 증정한다.

이전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커피 상품권 1장,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는 2장, 3000만원 초과 때는 3장을 오는 11월 중으로 준다.

행사는 광주은행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때 마케팅에 동의하면 자동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진섭 WM(Wealth Management·자산관리)사업부장은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이른 우리나라도 이제 노후준비가 필수인 시대"라며 "고객 은퇴준비와 더불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9.62(-12.63)
↓ 코스닥	804.34(-3.27)
↓ 금리(국고채 3년)	3.012(-0.069)
↑ 환율(USD)	1304.70(+0.70)